

# 승소해도 '국민정서' 걸림돌...한국행? 글썽

LA 총영사관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 입장  
병무청은 "병역기피 의혹 국민들 분노 여전"



유승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은 17년 만에 합법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며 이에 대해 최종 선고한다. 유승준이 승소하면 입국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LA 총영사관과 법무부가 이날 판결에 따라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 ●유승준은 승소할까?

올해 8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재판부가 같은 결론을 낼 경우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은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 돌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의혹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그의 입국을 불허했

유승준 병역기피 의혹 일지		
2001년	8월	대구지방병무청 징병 검사 '국방의 의무 다하겠다'
2001년	10월	허리디스크 수술 뒤 4급(공익공무원) 판정
2002년	1월8일	서울지방병무청 해외 공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
	1월18일	미국 시민권 취득
	1월23일	주 LA 총영사관에 한국 국적 상실 신고
	2월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
	6월	약혼녀 부친상으로 입국 금지 일시 해제(이름 방문)
2015년	5월	인터넷방송 통해 "한국에 가고 싶다"며 사과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9월	사증 발급 신청 LA 총영사관 발급 거부
	10월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2016년	9월	1심 패소 "거부처분 적법"
2017년	2월	2심 패소 "1심 판결 정당"
2019년	7월	대법원, 파기환송 "비자 발급 거부 위법" 판결
	11월15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

다. 유승준은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F-4)를 LA 총영사관에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뒤 '병역기피자도 38세가 넘으면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재외동포법 조항을 내세워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과 2017년 2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만일 유승준이 최종 승소하면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승준이 병역기피가 해제된 38세를 넘긴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판결

에 불복해 LA 총영사관이 다시 상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법인 더샘 김광삼 변호사는 13일 "LA 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유승준이 이에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국민정서상 입국 쉽지 않을 것"

LA 총영사관은 현재로서는 여전히 그에게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재외동포 비자는 선거권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취업 및 경제활동이 가능해 유승준이 입국한 뒤 연예활동을 하기 위한 포석으로 신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과도 무관치 않다.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현 변호사는 "재외동포 비자 취득 시도에 대해 여론의 반감이 커 판결문을 토대로 국민 정서와 그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02년 법무부에 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요청했던 병무청의 입장도 여전히 단호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17년 전 입국을 금지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분노 등 국민정서상 유승준의 입국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윤종수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비자 발급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슬기 기자 bsm@donga.com**

## 연예뉴스 HOT 4

### 성관계 유포 정준영 7년·최종훈 5년 구형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이들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간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 등이 참여한 메신저 대화방 등을 통해 11차례 공유한 혐의다. 또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선고 공판은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 (여자)아이들 '라이온' 빌보드 차트 5위



(여자)아이들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신곡 'LION(라이온)'이 2주 연속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올랐다. 13일(한국시간) 미국 빌보드 차트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이 최근 내놓은 'LION'이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5위를 차지했다. 지난주 13위에서 8계단 상승했다. 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인기 있는 아티스트의 순위를 나타내는 '소셜 50' 차트에서도 38위에 이름을 올렸다. 'LION'은 최근 엠넷 '퀵담'을 통해 선보여 호평 받았다. 4일 공개한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조회수 1320만 건을 넘어섰다.

### 배철수,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MC



배철수

방송인 배철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배철수는 19일 오후 8시부터 MBC가 생방송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의 메인 진행자로 나선다. MBC 허일후·박경연 아나운서가 보조 진행자로 함께 무대에 오른다. 배철수는 MBC FM4U '배철수의 음악캠프'를 통해 쌓아온 친근한 이미지에 힘입어 진행자로 낙점됐다.

### 팔 김스한 박보영 잠정 활동 중단



박보영

배우 박보영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박보영의 소속사 측은 13일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복귀 시기를 정하지 않고 휴식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박보영은 12일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 "팔이 쯤 아프다. 예전에 다친 뒤 최근에서야 치료를 하게 됐다"면서 "6개월가량 김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을 위해 잠시 활동을 쉬게 됐다"면서 "재정비 시간을 갖고 돌아오겠다"고 팬들에게 약속했다. 박보영은 지난해 8월 영화 '너의 결혼식' 이후 자취를 감추어왔다.

## 강다니엘 컴백...25일 싱글 발표

매니지먼트협회 중재로 소송사 분쟁 끝

### '이번이 진짜!'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의 '센터' 출신 가수 강다니엘이 다시 화려한 날갯짓을 시작한다. 25일 디지털 싱글을 발표하고 4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

강다니엘은 1월 말 워너원 활동을 끝내고 본 소속사로 돌아와 솔로로 데뷔 준비를 하던 중 전속계약 분쟁을 겪으며 음악프로그램을 비롯한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활동에 차질을 빚었다. 1년 6개월간 워너원의 '센터'로 활동하며 국내외에서 신드롬을 일으키며 멤버 가운데 가장 주목받았지만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우여곡절 끝에 9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중재로 분쟁을 마무리한 그는 서둘러 두 번째 활동 준비를 마치고 다시 팬들 앞에 서게 됐다.



강다니엘

강다니엘은 데뷔 당시 기회가 없어 미처 선보이지 못한 모습 등을 이번 기회에 모두 펼쳐내겠다는 각오다. 디지털 싱글도 13일 현재까지는 한 곡만 발표할 계획이지만 상황에 따라 한 곡 더 선보이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 출연 등 활동 보폭을 넓힌다. 현재 지상파와 케이블채널 등 각 방송사 음악 및 예능프로그램 등과 출연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 우선 16일 KBS 2TV '해피투게더4' 스페셜 MC로 출연해 녹화한다. 신곡 활동 시기와 맞물려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22~24일까지 3일간 경기 일산 킥박스에서 '강다니엘 팬미팅-컬러 온 서울'을 열고 팬들에게 먼저 인사를 전한다. 솔로 데뷔 이후 국내 첫 번째 단독 무대다.

한편 강다니엘은 13일 홈페이지와 SNS 공식 계정을 통해 강렬한 레드 톤이 돋보이는 싱글 티저 이미지를 공개해 눈길을 모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티셔도 입은 찬열 그룹 엑소의 멤버 찬열이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열린 향수 브랜드 팬시인회에 참석해 손가락으로 하트 포즈를 취하며 미소 짓고 있다. 깔끔한 티셔도 차림과 핑크빛 헤어로 스타일리시한 매력을 뽐내고 있다. **김진현 기자 kwangshin00@donga.com**

## 공유·정유미 '82년생' 흥행 잇는다

공유 SF영화 '서복'·정유미 '원더랜드' 내년 개봉

공유·정유미 주연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13일 기준 33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어 주연 배우들의 다음 행보에도 시선이 쏠린다.

공유는 복제인간 소재의 SF영화 '서복'으로 활동을 잇는다. 정유미는 영화 '원더랜드' 출연을 확정할 동시에 넷플릭스 제작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도 연이여 내놓는다.

공유가 택한 '서복'은 제작 규모나 소재, 박보검, 조우진 등 주연진의 면면까지 내년 한국영화 기대작으로 꼽히는 영화다. 인류 영생의 비밀을 지닌 복제인간과 이를 노리는 거대한 세력에 얽힌 이야기다. 이를 통해 공유의 '선구안'이 또 한번 인정받을지도 궁금증을 자극한다.

공유는 2017년 드라마 '도깨비'의 성공 직후 술한 시나리



공유

정유미

오를 받았고 심사숙고 끝에 '82년생 김지영'을 택해 흥행으로 이끌면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매번 새로운 인물과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인 그는 앞서 '도가니', '부산행' 역시 성공으로 이끈 바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객에게 믿음을 주는 배우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는 정유미도 스크린 활동에 속도를 낸다. '만추'의 연출자 김태용 감독의 새 영화 '원더랜드'의 주연을 맡아 내년 초 촬영을 시작한다. '82년생 김지영'의 타이틀롤을 맡아 30대 여성의 삶을 스크린에 녹여낸 그는 '원더랜드'에서는 분위기를 바꿔 박보검, 배우지 등과 호흡을 맞춰 다양한 커플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이에 더해 베스트셀러 소설을 옮기는 넷플릭스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도 선보인다. '82년생 김지영'에 이어 소설 속 인물이 정유미를 통해 또 한번 생명을 얻는다. **이혜리 기자 goff1024@donga.com**

## 정진운-경리 2년째 열애중

방송 프로그램 통해 2017년부터 만남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연기자 정진운(28)과 나인뮤지스 출신 경리(29)가 2년째 교제 중이다.

정진운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리는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두 사람이 2017년 말부터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미스틱스토리에 따르면 정진운과 경리는 방송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다. 이후



경리

정진운

2017년 말부터 교제를 시작해 서로 진지한 마음을 나누고 있다. 그해 12월 정진운과 경리는 듀엣곡 '둘만의 크리스마스'를 선보였다. 이들의 주변에서는 이때부터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케이블채

널 코미디TV의 예능프로그램 '신상 터는 녀석들'에도 함께 출연하며 호흡을 맞췄다. 특히 올해 3월 정진운이 입대 한 뒤에도 이들은 각별한 애정을 간직해왔다.

정진운은 2008년 그룹 2AM의 멤버로 데뷔해 '죽어도 못보내' 등으로 인기를 모았다. 2011년 솔로 활동에도 나선 그는 이듬해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2' 이후 연기로도 영역을 넓혔다. 입대해 현재 육군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다.

경리는 2012년 걸그룹 나인뮤지스로 처음 무대에 섰다. 이후 올해 7월 팀을 떠나 홀로서기에 나선 뒤 현재 MBC '섹션TV 연예통신' 등에 출연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경리간길'로도 팬들을 만나고 있다. **이정연 기자**